

아파트 부엌의 수납실태와 거주자 만족도

The storage space and the degree of residents' satisfaction for kitchen in apartment house

허지혜 · 이민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Ji-Hye Her · Min-Ah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pply the basic data for the plan of the storage space in the kitchen by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use and residents'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36 families of the local apartment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Korea.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furniture for storage, the upper and lower space have been installed in every furniture. The general tablewares were stored in the upper part of the kitchen and the frequently used goods for cooking were largely stored in the lower part. Second, in the method of reforming the kitchen space, it showed highest figure in case of purchasing the shelf and there were many cases of storing things by using the subsidiary storage furniture and boxes and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housewives have a tendency to solve the storage problem by using the less expensive, simple and passive ways. Third,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space for storage, it showed that the respondents were a little bit dissatisfied with the size of storage space, the position of furniture for storage, the convenience for using and the storage capacity. Among the furniture for storage in the kitch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upper and lower parts was a little bit low, but it is higher for the others. For the plan of storage space, the aesthetic appreciation reflects visually being in order was considered to be the important factor.

Key Words : Kitchen space, Storage space, Storage satisfaction, Using behavior

I. 서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962년 마포아파트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53.0%)으로 나타나(통계청, 2005),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급증은 도입초기 도시화로 인해 대두된 주택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주택 평면의 설계에 있어서 거주자의 주요구나 주생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

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자의 불만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권명희, 2002).

특히, 아파트의 여러 실내 공간 중 부엌은 가장 오랜 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공간으로 수납가구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계획에 있어 주부를 비롯한 사용자의 신체조건과 이용행태와 같은 주생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김정식, 2006).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에 의하면 부엌은 거주자들이 거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이경희, 2001, 재인용), 부엌의 수납공간은 공간구성 자체가 부적절하고 식품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사용이 매우 불편한 것

* Corresponding author: Min-Ah Lee
Tel: 063) 469-4625, Fax: 063) 469-4621
E-mail: leema@kunsan.ac.kr

으로 평가되었다(홍이경, 오혜경, 1997).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조리물품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부엌에 수납해야 할 물품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거주자는 부엌의 수납공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공간구성이 정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권명희,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엌의 수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부엌의 효율적인 수납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부엌의 수납실태

과거 단순한 찬장개념과 달리 현대에서 부엌의 수납가구는 여러 가지 독립적 기능을 가진 가구가 모여 하나의 종합적인 형태를 이루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류호찬, 1998). 부엌의 수납가구로는 상부수납장과 하부수납장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기능장, 키큰장, 식기장식장, 보조수납가구, 선반, 장식장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크게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선반, 키큰장, 보조수납가구, 식기장식장으로 구분하였고 그 구성내역은 <표 1>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엌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심현숙, 1994; 이희봉, 김지은, 1994) 이로 인해 부엌기기와 용품들이 작업 면 위에 노출된 채 이용되어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양지안, 1999). 권명희(2002)와 이철규(1994)는 부엌 작업대 내부 선반의 획일적인 분할과 일률적인 크기와 배치 등으로 인해 수납가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며, 또한 거주자의 과도한 수납물품 보유, 혹은 정리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수납공간이 부족해진다고 하면서 수납공간 자체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공간구획 및 비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윤귀정(2004)의 연구에서도 일률적으로 부엌의 수납공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상부수납장 보다는 부피가 큰 살림살이가 주로 수납되고 있는 하부수납장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형별로는 작은 평수(20평형)일수록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주방기기가 수납되어 있지 않고 부엌가구의 위아래로 노출되어 배치된 경우가 많다고 하여 소형주방의 수납공간 문제가 강조되었다(김정식, 2006).

부족한 수납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수납장 외에 보조 수납장과 다용도 선반을 구입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이희봉, 김지은, 1994), 권명희(2002)의 연구에서 20~30평형대는 키큰장, 식기장식장 등을 구입하거나 집 구조를 변경하였고, 40평형대에서는 이동이 용이한 웨건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20~30평형은 비용문제, 40평형대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이경, 오혜경(1997)의 연구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상자나 박스 이용, 선반 설치와 같은 소극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납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엌공간이 좁을수록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엌의 수납만족도

부엌가구는 대부분 그 배치와 면적, 유형 등에 있어서 주부의 연령 및 취업여부, 가족수 등에 관계없이 설치되어 거주자의 만족이 낮았고, 특히 자가소유 거주자들의 부엌가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박경숙, 1998), 부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 만족도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장성호, 1996; 최승희, 임춘삼, 1998). 권명희(2002)는 거주자들이 부엌 수납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 하고 있으며, 특히 수납의 편리성 측면에서 불만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 수납가구 중에서는 상부작업장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으며, 식기장식장, 키큰장, 수납보조가구는 수납할만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넓은 평형대의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박영순 외(2000)의 연구에서 작은 평형의 경우 수납장 내부 서랍의 증설 등 내부 공간구획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거주자들은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특히 상부수납장의 경우 천장까지 닿는 형태를 선호한다고 하여, 천장 끝까지 닿는 상부수납장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윤귀정(200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 최원석(2004)은 부엌공간과 가구구성, 높이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여유로운 수납공간,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형태 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윤복자 외(1999)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

<표 1> 부엌가구 구성요소

구분	구성내역
상부수납장	벽장, 유리장, 후드장, 코너벽장, 코너오픈장 등
하부수납장	개수대(싱크대), 서랍장, 코너장, 쌀통장, 가열대 등
키큰장	오픈키큰장, 키큰장 등
보조수납가구	전자렌지/오픈장, 다리미장, 인출기능장 등
식기장식장	장식장(유리, 나무 등)
선반	물박이 벽 선반, 계단식 진열선반, 걸이형 선반 등

결하고 효율적인 수납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납가구의 가시성, 접근성, 융통성, 유지관리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종인(2004)은 관련용품의 사용빈도와 물품의 무게,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수납용량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거주자들은 부엌 수납공간의 부족,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이와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이경희(2001)는 부엌공간의 이용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크게 가족구조와 가족생활로 구분한 뒤, 일련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구조변수에는 가족의 수와 가족유형, 가족주기, 연령을, 가족생활변수에는 학력, 직업, 월수입, 거주년수, 주택규모, 주택유형, 소유형태, 거주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가족주기와 주택규모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력, 직업, 월수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주택유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2개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각각이 부엌 수납공간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설문지의 작성을 위해 문헌조사(권명희, 2002; 박경숙, 1998; 신소영, 2002)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등을 통해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엌에 관련된 수납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부엌의 기본특성과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한다.

둘째, 부엌수납공간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납가구의 보유현황과 수납실태, 수납공간 개선경험을 알아본다.

셋째, 부엌의 수납만족을 파악하기 위해 수납공간 및 가구만족,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990년대 이전 충남 서천군의 아파트는 대부분 5층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었고, 1992년 제일아파트를 시작으로 1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2007년 7월 기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 중 1992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거주자로 하였다. 90년대 이후에 분양된 서천지역 아파트의 평면을 조사해 본 결과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평형별로 20평형대와 30평형대 그리고 40평형대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설문지법(self-reported)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2가구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 서천군지역의 총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 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을 20평형대 62가구, 30평형대 65가구, 40평형대 9가구로 유층 표집한 후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부들 면접 조사하였고, 136부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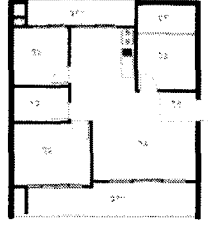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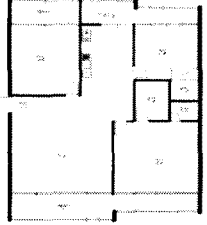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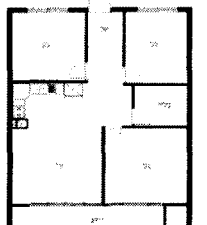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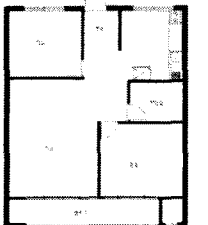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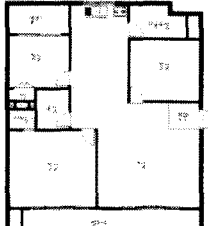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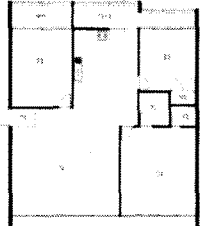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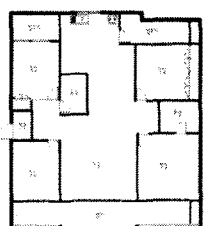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비교 검증을 하였다.

3. 조사대상 아파트의 기본특성

<표 2>는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서천지역 아파트, 즉 조사 대상아파트의 기본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총세대수가 1,280세대이며, 분양면적 20평형대가 745세대로 가장 많았고, 30평형대는 519세대, 40평형대는 16세대 순이다.

<표 2> 서천군지역 아파트 기본사항

아파트 기본사항	SY아파트	JW아파트	JI아파트	CS아파트	KK아파트	SH아파트
시공회사	SY종합건설	JW건설	SH건설	CSENC	DH방직	SH주택
총세대(수)	349세대 24평(134) 32평(215)	194세대 24평(106) 34평(88)	96세대 24평(36) 32평(60)	149세대 25평(149)	240세대 40평(16) 32평(96) 24평(128)	252세대 33평(60) 24평(192)
건물층수	11~15층	12~15층	12층	12~13층	14~16층	15층
준공연도	2004년 4월	1996년 12월	1992년 6월	2000년 7월	1996년 10월	1995년 5월

24평형 기준평면도 (부엌면적: 6.9㎡~9.3㎡)				
	아파트명	KK아파트	SY아파트	CS아파트A
32평형 기준평면도 (부엌면적: 12.3㎡~13.8㎡)			40평형 기준평면도 (부엌면적: 15.6㎡)	
	아파트명	KK아파트		SY아파트

[그림 1] 조사대상아파트의 기준평면도

조사대상아파트의 기준평면도와 부엌면적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IV. 결과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모두 주부로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30세~39세가 71명(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세~49세로 28명(20.6%), 50세 이상 23명(16.9%), 20세~29세 14명(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이 70명(51.5%)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졸이 54명(39.7%), 중졸이하가 12명(8.8%)순이었고, 취업여부에 있어서 전업주부가 73명(53.7%), 취업주부는 63명(46.3%)으로 전업주부가 약간 많았다. 월평균 가구수입은 201만원~300만원이 52가구(38.2%)로 가장 많았으며, 301만원~400만원 37가구(27.2%), 401만원~500만원은 20가구(14.7%), 200만원 이하 17가구(12.5%), 500만원 이상은 10가구(7.3%)순으로 중산층의 특성을 보였다.

가족주기는 형성기와 확대기가 각각 53가구(39.0%)와 48가구(35.3%)로 비슷했고, 축소기는 35가구(25.7%)였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 104가구(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3세대 18가구(13.2%), 1세대 14가구(10.3%)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

인 가족이 65가구(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인 가족 34가구(25.0%), 5인 이상 가족이 25가구(18.4%), 2인 이하 가족이 13가구(9.6%)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30평형대가 65가구(47.8%), 20평형대가 62가구(45.6%), 40평형대는 9가구(6.6%)로 20평형대와 30평형대가 127가구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택의 소유형태에서는 자기소유가 115가구(84.6%)로 대부분이며, 전세/월세는 21가구(15.4%)로 나타났다. 현 아파트의 거주기간은 3~4년 거주가 44가구(32.4%)로 가장 많았고, 5~6년 거주는 29가구(21.3%), 9년 이상 거주는 28가구(20.6%), 2년 이하 거주는 18가구(13.2%), 7~8년 거주는 17가구(12.5%)로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주부의 연령은 30세~39세, 학력은 대졸이 많았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하였으며 가구수입은 201만원~300만원, 형성기와 확대기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 20~30평형대와 자기소유의 아파트, 그리고 3~4년 거주한 가구가 많았다.

2. 부엌 수납실태

1) 수납가구 보유현황

부엌의 수납가구 중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은 조사대상 가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선반(64.7%)과 보조수납가구(63.2%)도 많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 식기장식장(39.7%), 키큰장(19.9%) 등이 조사 되었다(표 4 참조).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6

변수		f(%)	변수		f(%)
연령	20~29세	14 (10.3)	가족 유형	1세대	14 (10.3)
	30~39세	71 (52.2)		2세대	104 (76.5)
	40~49세	28 (20.6)		3세대	18 (13.2)
	50세 이상	23 (16.9)		계	136(100.0)
	계	136(100.0)		가족 수	2인
학력	중졸 이하	12 (8.8)	3인		34 (25.0)
	고졸	54 (39.7)	4인		65 (47.1)
	대졸 이상	70 (51.5)	5인 이상		25 (18.4)
	계	136(100.0)	계		136(100.0)
취업 여부	취업주부	63 (46.3)	주택규모	20평형대	62 (45.6)
	전업주부	73 (53.7)		30평형대	65 (47.8)
	계	136(100.0)		40평형대	9 (6.6)
월 평균 가구수입	200만원 이하	17 (12.5)	주택소유 형태	계	136(100.0)
	201~300만원	52 (38.2)		자가	115 (84.6)
	301~400만원	37 (27.2)		전세/월세	21 (15.4)
	401~500만원	20 (14.7)	거주기간	계	136(100.0)
	500만원 이상	10 (7.3)		2년 이하	18 (13.2)
계	136(100.0)	3~4년 거주		44 (32.4)	
가족주기	형성기	53 (39.0)	5~6년 거주	29 (21.3)	
	확대기	48 (35.3)	7~8년 거주	17 (12.5)	
	축소기	35 (25.7)	9년 이상	28 (20.6)	
	계	136(100.0)	계	136(100.0)	

<표 4> 부엌의 수납가구 보유현황¹⁾

빈도(%)

변수	수납가구종류	상부 수납장	하부 수납장	선반	보조 수납가구	식기 장식장	키 큰장
	사진						
	전체 (N=136)	136(100)	136(100)	88(64.7)	86(63.2)	54(39.7)	27(19.9)
가족 주기	형성기(n=53)	53(100.0)	53(100.0)	35(66.0)	40(75.5)	17(32.1)	8(15.1)
	확대기(n=48)	48(100.0)	48(100.0)	31(64.6)	23(47.9)	14(50.0)	11(22.9)
	축소기(n=35)	35(100.0)	35(100.0)	22(62.9)	23(65.7)	13(37.1)	8(22.9)
	χ^2	-	-	.94	8.35*	3.51	1.24
	df	-	-	2	2	2	2
거주 기간	2년 이하(n=18)	18(100.0)	18(100.0)	13(72.2)	12(66.7)	9(50.0)	7(38.9)
	3~4년 거주(n=44)	44(100.0)	44(100.0)	23(52.3)	21(47.7)	19(43.2)	4(9.1)
	5~6년 거주(n=29)	29(100.0)	29(100.0)	21(72.4)	21(72.4)	11(37.9)	3(10.3)
	7~8년 거주(n=17)	17(100.0)	17(100.0)	9(52.9)	14(82.4)	6(35.3)	4(23.5)
	9년 이상(n=28)	28(100.0)	28(100.0)	22(78.6)	18(64.3)	9(32.1)	9(32.1)
	χ^2	-	-	7.57	8.38	1.86	11.75*
df	-	-	4	4	4	4	

1) 본 논문에서 수행된 모든 교차분석(표4, 6, 7, 8, 9, 12)은 <표 3>의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0개가 모두 변수로 이용되었으며, 지면 관계상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만을 표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2)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 p<.05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알아본 결과 가족주기와 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자렌지/오븐장, 다리미장 등의 보조수납가구는 가족주기(p<.05)에서, 그리고 키큰장은 거주기간(p<.05)에 따라 보유현황에 차이를 보였고, 그 외는 수납가구 보유현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보조수납가구는 형성기(75.5%)와 축소기(65.7%)의 가구가 확대기(47.9%)에 비해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였다. 키큰장은 거주기간이 2년 이하에서 가장 많았고(38.9%), 그 다음으로는 9년 이상(32.1%), 7-8년(23.5%) 등의 순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유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결혼 혹은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 장만을 하거나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납해야 할 물품이 증가하여 구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수납실태

부엌의 물품 수납실태를 <표 5>와 같이 살펴보았다. 상부수납장에는 컵·잔류가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93.4%) 다음으로 대접·접시류(82.4%), 찬통류(61.8%), 장식용식기(54.4%), 조리보조식품(38.2%), 기타 식기류(36.8%) 순이었다. 하부수납장에는 후라이팬류와 냄비류가 가장 많았고(각각 86.8%), 다음으로 준비도구류(75.7%), 소형바구니류(67.6%), 일회용품류(65.4%), 조리보조식품(64.7%), 기타식기류(53.7%)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에서 많이 쓰이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품들은 하부수납장에, 식기류는

상부수납장에 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키큰장에는 가전제품이 수납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55.6%), 다음으로 가공식품류(48.1%), 대접·접시류, 찬통류(각각 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기장식장에는 장식용식기가 많았고(92.6%), 보조수납가구에는 가전제품(91.9%)이 많았으며, 그 밖에 일회용품류(43.0%), 가공식품(39.5%), 비가공식품(39.5%) 등이 있었다. 선반에는 컵·잔류(79.5%), 대접·접시류(56.8%)가 대부분 이었으며, 부엌의 바닥에는 교자상을 놓거나(82.0%), 가전제품(64.0%) 등이 있었다. 특히,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부엌의 수납가구에 보관하기가 어려워 바닥에 방치하고 있거나, 키큰장 혹은 보조수납가구와 같은 가구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윤거정(200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피가 큰 물품의 수납을 위해 부족한 하부수납장의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수납공간 개선경험

(1) 수납공간 개선여부

<표 6>은 수납공간의 개선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92가구(67.6%)는 수납공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납공간을 개선하였고 44가구(32.4%)는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특성 중 주택소유형태가 유일하게 수납공간 개선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선을 한 자가소유가구가 82가구

<표 5> 부엌의 물품 수납실태

N=136, 빈도(%)

수납장소	물품종류	가전제품	후라이팬류	냄비류	바구니류	대접/접시류	찬통류	컵·잔류	장식용식기
상부 수납장(n=136)		8 (5.9)	9 (6.6)	15(11.0)	25(18.4)	112(82.4)	84(61.8)	127(93.4)	74(54.4)
하부 수납장(n=136)		69(50.7)	118(86.8)	118(86.8)	92(67.6)	34(25.0)	50(36.8)	5 (3.7)	7 (5.1)
키큰장(n=27)		15(55.6)	3(11.1)	2 (7.4)	4(14.8)	11(40.7)	11(40.7)	2 (7.4)	7(25.9)
식기 장식장(n=54)		4 (7.4)	-	5 (9.3)	1 (1.9)	14(25.9)	6(11.1)	25(46.3)	50(92.6)
보조수납가구(n=86)		79(91.9)	5 (5.8)	8 (9.3)	4 (4.7)	5 (5.8)	2 (2.3)	5 (5.8)	3 (3.5)
선반(n=88)		8 (9.1)	2 (2.3)	9(10.2)	8 (9.1)	50(56.8)	20(22.7)	70(79.5)	4 (4.6)
바닥(n=50)		32(64.0)	1 (2.0)	1 (2.0)	2 (4.0)	-	1 (2.0)	-	-
수납장소	물품종류	기타 식기류	준비 도구류	조리 보조식품	일회용품류	가공 식품류	비가공 식품류	교자상류	대형 조리기구
상부 수납장(n=136)		50(36.8)	23(16.9)	52(38.2)	37(27.2)	45(33.1)	1 (0.7)	1 (0.7)	1 (0.7)
하부 수납장(n=136)		73(53.7)	103(75.7)	88(64.7)	89(65.4)	65(47.8)	13 (9.6)	9 (6.6)	30(22.1)
키큰장(n=27)		8(29.2)	1 (3.7)	1 (3.7)	8(29.2)	13(48.1)	1 (3.7)	5(18.5)	4(14.8)
식기 장식장(n=54)		4(7.4)	4 (7.4)	-	-	-	-	1 (1.9)	2 (3.7)
보조수납가구(n=86)		18(20.9)	2 (2.3)	3 (3.5)	37(43.0)	34(39.5)	34(39.5)	13 (9.6)	5 (5.8)
선반(n=88)		5 (5.7)	15(17.0)	8 (9.1)	8 (9.1)	4 (4.6)	4 (4.6)	4 (4.6)	6 (6.8)
바닥(n=50)		1 (2.0)	-	-	1 (2.0)	12(24.0)	8(16.0)	41(82.0)	5(10.0)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표 6> 수납공간 개선여부 빈도(%)

변수	개선여부	
	개선했다	개선 안했다
전체 (N=136)	92(67.6)	44(32.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n=115)	82(71.3)
	전세/월세(n=21)	10(47.6)
	χ^2	4.55*
	df	1

* p<.05

(71.3%)로 전세/월세(47.6%) 보다 수납공간 개선에 더 적극적이었다(p<.05). 선행연구에서 수납공간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평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납공간을 개선한 이유와 수납공간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개선한 이유는 「수납공간이 부족해서」가 월등히 많았고(78.3%), 「지저분해서」(9.8%), 「편안한 사용을 위해」(5.4%), 「수납장 구입을 당연히 여겨서」(4.3%), 「부엌공간의 인테리어 때문에」(2.2%)가 소수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특히, 전업주부는 편안한 사용을 위해(10.4%, 취업주부는 0%), 취업주부는 지저분해서(15.9%, 전업주부는 4.2%) 개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는 수납물품의 정리정돈에, 전

업주부는 수납공간의 편리한 이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납공간을 개선하지 않은 전반적인 이유는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서」(25.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25.0%), 「비용이 들어서」(15.9%), 「우리 집이 아니라서」(15.9%), 「번거로워서」(15.9%), 「시간이 없어서」(2.3%)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개선여부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 특성 중 주택의 소유형태가 개선하지 않은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p<.001), 자가 소유인 경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해서」가 3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월세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54.6%),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서」(45.5%)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표 8).

(2) 수납공간 개선방법

<표 9>는 개선을 위해 실제로 취한 방법을 조사한 것으로, 선반을 구입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90.2%), 그 외 보조수납가구를 설치(65.2%), 상자나 박스를 이용하여 수납(46.7%), 식기장식장과 키친장을 구입(각각 30.4%, 2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작업대를 교체(13.0%), 앞 베란다에 장설치(7.8%), 다용도실에 상, 하부수납장 설치(5.4%), 다용도실 창고 설치(2.2%) 등이 소수 나타나, 대부분은 설치가 어렵지 않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부분

<표 7> 수납공간 개선한 이유

빈도(%)

변수	이유	수납공간 부족	지저분 해서	편안한 사용을 위해	구입을 당연히	인테리어 때문에
취업 여부	취업주부(n=44)	35(79.5)	7(15.9)	-	2 (4.5)	-
	전업주부(n=48)	37(77.1)	2 (4.2)	5(10.4)	2 (4.2)	2 (4.2)
	χ^2	9.68*				
	df	4				

* p<.05

<표 8> 수납공간 개선하지 않은 이유

빈도(%)

변수	이유	더 이상의 공간이 없어서	필요성 느끼지 못해	비용이 들어서	우리집이 아니라서	번거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주택 소유 형태	자가 (n=33)	6(18.2)	11(33.3)	7(21.2)	1 (3.0)	7(21.2)	1 (3.0)
	전세/월세(n=11)	5(45.5)	-	-	6(54.6)	-	-
	χ^2	24.88***					
	df	5					

*** p<.001

<표 9> 수납공간 개선방법

빈도(%)

변수	실제로 취한 방법	선반을 설치	보조 수납가구 설치	상자, 박스 이용	식기 장식장 구입	키 큰장 구입	작업대 교체	앞 베란다 장 설치	다용도실 상/하부 장 설치	창고 설치
전체 (N=92)		83 (90.2)	60 (65.2)	43 (46.7)	28 (30.4)	23 (25.0)	12 (13.0)	9 (7.8)	5 (5.4)	2 (2.2)
주거 규모	20평형대(n=37)	33 (89.2)	26 (70.3)	11 (29.7)	12 (32.4)	11 (29.7)	1 (2.7)	4 (10.8)	3 (8.1)	1 (2.7)
	30평형대(n=48)	44 (91.7)	30 (62.5)	30 (62.5)	16 (33.3)	9 (18.6)	6 (12.5)	5 (10.4)	1 (2.1)	1 (2.1)
	40평형대(n=7)	6 (85.7)	4 (57.1)	2 (28.6)	-	3 (42.9)	5 (71.4)	-	1 (14.3)	-
	χ^2	2.92	.23	12.24**	3.04	2.19	28.45***	.76	2.48	.15
	df	2	2	2	2	2	2	2	2	2
거주 기간	2년 이하(n=11)	11(100.0)	8 (72.7)	5 (45.5)	5 (45.5)	4 (36.4)	1 (9.1)	-	2 (18.2)	-
	3~4년(n=31)	23 (74.2)	20 (74.2)	16 (51.6)	5 (25.8)	8 (25.8)	3 (9.7)	7 (22.6)	-	-
	5~6년(n=18)	18(100.0)	11 (61.1)	11 (61.1)	6 (56.4)	1 (5.6)	4 (22.2)	1 (5.6)	1 (5.6)	-
	7~8년(n=11)	9 (81.8)	9 (81.8)	6 (54.5)	4 (36.4)	1 (9.1)	-	-	-	1 (9.1)
	9년 이상(n=21)	21(100.0)	12 (57.1)	5 (23.8)	5 (23.8)	9 (42.9)	4 (19.0)	1 (4.8)	2 (9.5)	1 (4.8)
	χ^2	4.44	1.04	3.67	.93	1.25*	4.03	9.128	6.09	4.50
df	4	4	4	4	4	4	4	4	4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 p<.05 ** p<.01 *** p<.001

거주자가 상자나 박스이용, 선반설치와 같은 소극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납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홍이경과 오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카이스퀘어 분석을 한 결과, 주택 규모와 거주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자나 박스를 이용하여 개선한 경우는 30평형대에서 많았고(62.5%, p<.01) 상대적으로 부엌에 공간의 여유가 있는 40평형에선 부엌의 작업대를 교체한 경우가 많아(71.4%), 좀 더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9년 이상 거주자가 키큰장을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42.9%) 다음으로 2년 이하(36.4%), 3~4년 거주(25.8%)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p<.05).

3. 부엌 수납만족도

1) 수납공간 만족도

<표 10>은 부엌의 수납공간의 면적, 수납가구의 위치, 수납방식의 편리성, 수납가구용량에 대한 만족도와 조사대상자 특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수납공간의 면적이 2.58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른 항목도 평균(M)이 3.0 이하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거주자들이 수납공간에 대하여 대체로 불만족 한다는 다른 연구의 결과(박경숙, 1998; 최승희, 임춘삼, 1998)와 일치

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 중 수납공간의 면적은 학력과 가족주기에 따라(각각 p<.05), 수납용량은 가족주기에 따라(p<.0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납공간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으며(중졸이하 3.17, 고졸, 2.63, 대졸이상 2.44), 가족주기별로는 가족의 형성기에 수납공간면적과 수납용량의 만족도가 확대기와 축소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성기에 비해 축소기에 수납공간의 면적과 가구용량에 대한 불만요소가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오랜 살림의 노후화로 물품의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거나 부족한 수납면적과 용량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수납가구 만족도

<표 11>은 부엌의 수납가구에 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부엌의 불박이 가구인 상·하부수납장보다는 거주자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키큰장, 선반, 보조수납가구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고, 이는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납공간 계획요소 인식

수납공간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심미성, 편리성, 기능성, 보관성, 실용성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각 항목을 설명하면 심미성은 미적인 면, 즉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공간계획, 편리성은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

<표 10> 수납공간 만족도

변수	수납공간면적		수납가구 위치		수납방식편리성		수납가구용량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평균	scheffe'	
M	2.58		2.96		2.77		2.72		
SD	.79		.70		.81		.85		
연령	20대	2.43		3.00		2.86		2.36	
	30대	2.41		2.92		2.65		2.61	
	40대	2.79		3.04		2.96		2.96	
	50대	2.96		3.00		2.87		3.00	
	F	3.86		.24		1.26		3.02	
학력	중졸 이하	3.17	b	3.08		2.83		3.08	
	고졸	2.63	a	3.02		2.78		2.87	
	대졸 이상	2.44	a	2.9		2.76		2.54	
	F	4.67*		.62		.05		3.60	
취업 여부	취업주부	2.61		2.97		2.73		2.70	
	전업주부	2.55		2.96		2.81		2.74	
	T	.52		.08		-.56		-.28	
월 수입 (만원)	200이하	2.59		3.00		2.88		2.65	
	201-300	2.46		2.92		2.83		2.67	
	301-400	2.70		3.05		2.78		2.76	
	401-500	2.90		3.00		2.70		2.75	
	500이상	2.10		2.70		2.40		2.90	
	F	2.32		.56		.71		.20	
가족 주기	형성기	2.36	a	2.94		2.64		2.45	a
	확대기	2.63	ab	3.00		2.88		2.85	ab
	축소기	2.86	b	2.94		2.83		2.94	b
	F	4.49*		.10		1.17		4.67*	
가족 유형	1세대	2.64		3.00		2.86		2.50	
	2세대	2.54		2.92		2.77		2.73	
	3세대	2.78		3.17		2.72		2.83	
	F	.74		.94		.11		.64	
가족수	2인	2.77		3.08		2.92		2.62	
	3인	2.62		2.97		2.65		2.65	
	4인	2.42		2.91		2.86		2.73	
	5인 이상	2.84		3.04		2.64		2.84	
	F	2.06		.35		.89		.32	
주택 규모	20평형대	2.45		2.97		2.84		2.66	
	30평형대	2.66		2.95		2.74		2.74	
	40평형대	2.89		3.00		2.56		3.00	
	F	1.86		.02		.59		.6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59		2.96		2.77		2.77	
	전/월세	2.52		2.95		2.76		2.48	
	T	.35		.99		.02		.57	
거주 기간	2년이하	2.72		3.28		2.94		2.78	
	3-4년	2.36		2.95		2.61		2.55	
	5-6년	2.69		2.76		2.76		2.90	
	7-8년	2.65		3.06		2.94		2.76	
	9년	2.68		2.93		2.82		2.75	
	F	1.25		1.64		.84		.8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05

<표 11> 수납가구 만족도

변수	상부 수납장	하부 수납장	키 큰장	보조 수납가구	선반	식기장식장
M	2.92	3.04	3.85	3.45	3.53	3.33
SD	.93	.82	.87	.89	.93	.78

<표 12> 수납공간 계획요소 인식

빈도(%)

변수	항목	시각적인미를 고려한 수납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	꺼내기 쉬운 수납	많은 물품을 수납	보이는 수납
전체 (N=136)		51(37.6)	38(27.9)	29(21.3)	18(13.2)	-
연령	20대 이하	6(42.9)	3(21.4)	3(21.4)	2(14.3)	-
	30대	32(45.1)	17(23.9)	12(16.9)	10(14.1)	-
	40대	11(39.3)	6(21.4)	8(28.6)	3(10.7)	-
	50대 이상	2 (8.7)	12(52.2)	6(26.1)	3(13.0)	-
	X ²	13.95*				
df	9					

* p<.05

가능성은 꺼내기 쉬운 수납계획, 보관성은 되도록 많은 용량의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계획, 마지막으로 실용성은 외부에서 수납물품이 보이도록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표 12 참조).

「시각적인미를 고려한 수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7.6%), 다음은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27.9%), 「꺼내기 쉬운 수납」(21.3%), 「많은 물품을 수납」(13.2%)순으로 나타났고, 「보이는 수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주자는 없었다. 시각적인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거주자들이 부엌의 수납공간 부족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납공간 계획에 있어서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계획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조사대상자 특성 중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20~40대에서는 「시각적인미」를 중요시 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이 가장 높아(52.2%) 연령이 높을수록 작업의 편리성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파트부엌의 수납공간에서 물품 수납에 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거주자의 수납만족, 수납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인식을 파악하여 부엌 수납공간 계획의 실제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엌의 수납가구 중에서 상·하부수납장은 모든 가구에 설치되어있었고, 선반과 보조수납가구는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가장 많이 설치하였다. 상부수납장에는 컵·잔류, 대접·접시류 등의 식기류가, 하부수납장에는 후라

이팬류, 냄비류 등 조리에 많이 쓰이는 물품이 수납되었으며, 가구수납이 어려운 교자상류나 가전제품 등은 바닥에 놓인 채 이용되고 있었다. 보조수납가구와 키큰장에는 가전제품, 식기장식장에는 장식용식기가 많았고, 선반은 컵·잔류 등을 많이 보관하였다.

2) 부엌공간을 개선한 이유는 「수납공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을 위해 실제로 취한 방법은 선반을 구입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보조수납가구와 상자나 박스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소극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간단한 방법으로 수납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가 소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월세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가 높게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3) 수납만족도에서는 거주자들은 수납공간의 면적에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으며 그 외, 수납가구 위치, 수납가구의 편리성 및 수납용량에 대해 모두 약간의 불만족을 나타냈다. 수납가구 중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상·하부수납장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지만 키큰장, 선반 등 나머지 가구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4) 수납공간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인미, 즉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수납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연령별로 50대 이상에서는 작업행위와 접근성있는 수납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수납계획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상·하부수납장보다 거주자들이 부엌공간에 부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따로 구입하는 선반과 보조수납가구, 식기장식장, 키큰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향후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부엌공간의 수납면적과 위치, 편리성을 고려한 이동식 수납장

의 계획이 요구되며, 기존에 설치된 수납장 중에서는 부피가 큰 물품이 주로 수납되는 하부 수납장의 증가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주자들은 여전히 부엌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수납공간의 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납계획요소로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계획임을 주목하여 수납면적과 가구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수납공간의 효율적인 구획을 통해 일상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수납공간 계획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파트 부엌공간의 사용실태를 충청남도 서천 지역으로 한정지어 현장 조사를 하였기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아파트 부엌의 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납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와 지역별로 균형을 맞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부엌, 수납공간, 수납만족, 이용행동

참 고 문 헌

- 권명희(2002) 아파트 식생활 영역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식(2006) 아파트 주방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호찬(1998) 신세대 부부를 위한 부엌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1998) 아파트 거주자의 부엌가구 사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안수연, 최은희, 류호정, 방희조(2000) 거주자 디자인 선호에 따른 아파트 가구디자인 개발연구. 실내디자인논문집, 22, 3-15.
- 신소영(2002) 아파트 수납공간에 대한 소비자평가: 30평형대의 붙박이 수납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
- 심현숙(1994) 아파트 거주자의 수납가구에 관한 만족도, 요구도 및 붙박이가구 선호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지안(1999) 부엌디자인 개선을 위한 생활경험 및 요구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귀정(2004) 가사노동과정에 대응하는 아파트 가사공간 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복자, 박영순, 박남희, 조명은, 신영숙, 유옥순(1999) 부엌 수납장 평면계획을 위한 사례연구. 생활과학논문집, 13, 57-68.
- 이경희(2001) 공동주택 거주자의 부엌공간에 관한 의식 및 행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인(2004) 가사공간의 상호연계성과 기능적 활용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규(1994) 소규모 아파트 주방작업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 김지은(1994)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는 부엌공간 계획을 위한 현장연구. 생활과학논문집, 5, 139-159.
- 장성호(1996) 소규모 아파트 부엌공간의 특성과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
- 최승희, 임춘삼(1998) 아파트 거실과 식당 부엌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6, 142-152.
- 최원석(2004) 거주자 특성에 따른 시스템가구 선호도에 관한 연구: 아파트 주방공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이경, 오혜경(1997) 아파트의 수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1, 3-10.
- 통계청 www.nso.go.kr, 2005년 인구센서스.

(2008. 6. 3 접수; 2008. 9. 25 채택)